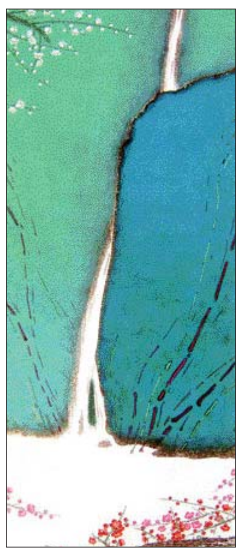
정해영씨 개인전

내달 2일까지 일곡갤러리


정해영 작 '매(梅)'

한국화가 정해영씨의 여섯번째 개인전이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곡갤러리에서 열린다.

'민화'를 근간으로 한 작품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정 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상징적 유희'를 주제로 '매' '난' '국' '죽' 등 사군자를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을 선보인다.

또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색채를 활용, 물고기와 새, 나무, 연꼬 등을 소재로 삼아 자연과의 교감을 묘사한 '사랑' '염원' 등도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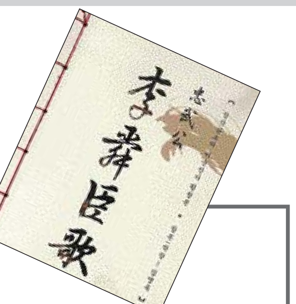
전남대 미술학과 출신인 정씨는 정통과 형상회, 회원등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575-3457. /윤영기기자 penfoot@

제1회 통일독서대회

'제1회 통일독서대회'가 열린다.

서울평양문화교류협회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청년통일문화센터 푸른공감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남한에서 출간된 북한 서적의 독후감을 제출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에서 일반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정도서 확인과 접수는 대회 홈페이지(www.tongilbook.net)에서 하면 된다. 마감은 오는 31일까지. 심사 결과는 10월1일 발표한다. 문의 02-702-3783~4. /정상필기자 camus@

7년 산고 끝 '이순신歌' 완창본 낸 국악인 김영옥씨



"충무공 모친 살던 집 들러 힘 얻었죠"

사료·논문 연구, 사학자들 만나며 作唱 작업

'이순신가'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공연 계획

국악인 김영옥(61·전 여수시립국악단 예술감독·사진)씨는 지난 7월 책 한권을 받아들고 한 없이 눈물을 흘렸다. '창작 판소리 이순신가(歌)'.

12살 때 가야금의 매력에 빠져 국악에 입문한 지 50여년. '소리꾼 김영옥'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순신가'는 그녀가 사랑하는 '소리'에 대한 집념의 결과물이자, 그녀에게 새로운 열정을 지펴준 동력이었다.

순천여고와 서라벌 예대를 거쳐 한농선 선생 등을 사사한 김 씨가 펴낸 '이순신가'는 완창할 경우 4시간 40분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책은 이순신의 출생에서부터 청년기, 벼슬길과 시련기, 옥포해전,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무공의 일대기를 장엄한 파노라마로 펼쳐놓고 있다. 진양조, 세마치, 엇모리, 평조, 계면조 등 다양한 장단과 악조를 구사하고 있으며 이순신과 연관이 있는 '강강술래' 등 민요와 노랫말, 아니리, 시조창 등을 골고루 삽입했다.

국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판소리 창작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많은 시간과 품이 드는 힘겨운 작업이라 결실을 맺기는 참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에 발간된 '이순신가'의 의미는 더욱 깊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사)충무공 이순신 연구소 정광순 소장과 만나면서 충무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우리 시대에 맞는 소리가 있지 않을까 고민하던 그녀에게 이순신은 맞춤한 주제였다. '적벽가'를 부르며 장비와 조조의 전과를 칭송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역사가 담긴 '우리' 인물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처음에는 여수시립국악단과 단막 창무극을 무대에 올렸다. 이후 '이순신'에 대한 연구는 계속됐고 '난중일기'를 비롯해, 김훈과 김탁환의 소설, 사료와 논문을 살피고 향토사학자들을 만나 토론하며 작창(作唱)을 했다.

김씨는 매일 새벽 1시부터 4~5시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씨줄과 날줄로 베를 짜는 심정으로 한대목 한대목을 써나갔다. 글이 써지지 않을 때면 이순신 어머니 변씨부인이 잠시 살았던 여수 웅천 송연마을 거처를 드나들며 힘을 얻었다.

지난해 6월 국립국악원에서 2시간 30분 분량의 '이순신가'를 완창하는 등 수시로 무대에 올랐던 김씨는 관중들의 반응, 전문가들의 평가를 짚어가며 완성본을 만들어갔다.

"소리는 재미와 감동이 중요해요. 예술성과 문학성도 무시할 수 없죠. 특히 창작 판소리는 이 시대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해요. 충무공의 삶은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만들기는 했지만 이건 저만의 작품이 아니죠. 후학들이 살을 붙이고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어요. 자신들의 가슴에 꽂힌 언어와 소리로 끊임 없이 '새로운 이순신'을 탄생시켰으면 합니다."

충무공의 고향인 충남 아산을 비롯, 해인사 산사음악회 등의 무대에 설 계획인 김 씨는 특히 해군사관학교 공연에 기대가 크다. 해사 생도들에게 '이순신의 후예'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기 때문이다.

김씨는 수제 작업으로 제작한 책을 전국의 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했다.

지금까지 '심청가' 등 13차례 완창 무대를 가졌던 김 씨는 교육에 치중하느라 젊은 시절 '소리'를 많이 하지 못했던 데 아쉬움이 많다. 김 씨는 앞으로 '이순신가'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끊임 없이 무대에 오를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금남로 분관의 존재 이유

세계적인 미술관 가운데 하나인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는 미국 시카고의 최대 번화가인 미시간 애비뉴에 자리하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이 미술관은 도심과 밀레니엄 공원, 미시간 호수 등을 끼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 덕에 일년 내내 시카고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현대 미술의 메카로 불리는 뉴욕의 중심가 맨하튼은 아예 미술관들이 '접수'했다. 센트럴파크를 끼고 있는 맨하튼 5번가는 뉴욕 메트로 폴리탄 미술관을 필두로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시립미술관 등 수십여개의 미술관이 줄지어 있다. 이들 가운데 뉴욕 현대미술관은 그중에서도 가장 '목이 좋다'고 하는 맨하튼 심장부에 위치해 있다.

뉴욕 뿐 만이 아니다. 프랑스의 퐁피두센터나 런던의 테이트 갤러리 등 문화선진국의 유명 미술관들은 예외없이 시내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미술관을 대도시의 '안방'에 내준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미술관은 시대를 초월한 수많은 미술품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미적(美的) 안목을 끌어 올리는 공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국민들의 문화마인드가 높아지면 국가경쟁력도 함께 올라간다고 믿어 국가 차원에서 미술관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다.

이런 상식 중의 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광주 시립미술관과 국립 현대미술관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중외공원과 과천동물원 옆에 들어서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지난 2003년 구 동구청 건물 2층에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을 오픈, 궁색하게 나마 도심 미술관으로서의 체면을 세웠다. 하지만 금남로 분관은 설립 취지와 달리 인력과 예산문제에 발목잡혀 도심 미술관으로서의 장점을 살리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젊은층과 직장인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오후 6시만 되면 문을 닫는 폐쇄적인 운영과 (이들을 참여시키는)프로그램 부재로 지난 4년간 제 색깔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이 금남로 분관이 머지 않아 '완전히' 문을 닫을 모양이다. 최근 광주시는 농성동의 구 전남도지사 공관을 다목적 전시관으로 리노베이션해 현재의 금남로 분관을 이곳으로 이전할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시립미술관 여건상 농성동과 금남로 분관 2곳을 동시에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이유다.

그렇다고 현 도심 미술관을 폐쇄하는 것이 대안이어선 곤란하다. 도심이란 지리적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미술공간으로 특화시키는 묘안을 짜내야 한다. 기존의 미술관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도 않은 채 또다른 전시관을 개관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의 전형이다. 제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갖춘 미술관이더라도 시민들이 찾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닌가. 광주시의 장기적인 문화안목이 필요하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신뢰와 감동의 여행사
코오롱세계일주 광주점
www.hikolon.com 문의전화: 062-373-3322

씨앤헬리크루즈 산동성패키지
명자·공자유적지/태산 등정 5일 -(월/토) 349,000원~
[온천특선]공자유적지/태산/일조 5일 -(월/토) 399,000원~
[산악등반]봉산/태산/오련산등반 5일 -(월/토) 349,000원~
[수호지역사탐방]청도/유방/치박 5일 -(월/토) 349,000원~
산동성 완전일주 6일 -(수) 399,000원~

광주출발 국내여행 제주도 여행
초특가 한라산 등반 -(토) 3일 129,000원
초특가 효도여행 -(수) 4일 149,000원
초특급 패키지여행 3일 179,000원~

광주출발 해외여행 광주출발 전세기 상품
新계림(용승온천,리강유람) -(수) 4일 749,000원
新계림(양삭,용승온천,리강유람) -(토) 5일 999,000원
新계림 골프 -(토) 5일 1,050,000원
新계림 골프 -(수) 4일 749,000원
상해/항주/소주 -(수) 4일 369,000원~
상해/항주/장가계 -(토) 5일 699,000원~
상해/황산/항주 -(토) 5일 599,000원~
심양/고구려 문화유적지 -(금) 569,000원~
심양/북경 -(금) 4일 649,000원~
심양/백두산 -(금) 4일 699,000원~
심양/백두산/북경 -(월) 5일 839,000원~
심양/백두산/단동/본계수 -(월) 5일 769,000원~

유럽 터키 9일 1,090,000
NEW 융프라우&서유럽 4개국 9일 2,490,000
NEW 노팁노옵션&서유럽 7국 12일 2,990,000

대양주 일본 동남아
파격할인
NO.1 일본 완전일주 5일 899,000

秋夕특선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터던악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만남의 광장(12세) 최고급관
2관	디워(디지털/12세)
3관	기담(15세)/리턴(18세)
4관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15세)
5관	화려한 휴가(12세)
6관	디워(12세)/판타스틱4(12세)
7관	화려한 휴가/만남의 광장(12세)
8관	스타 더스트(12세)
9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있습니까(18세)

5월 1일부터 메가티즌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온 가족이 편안한 문화공간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있습니까(18세)
2관	미스터빈의 홀리데이(전체)
3관	화려한휴가(12세)
4관	서핑업(전체)/판타스틱 4(12세)
5관	디워(12세)
6관	기담(15세)/리턴(18세)
7관	만남의 광장(12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 옥내·옥외 주차장 300대 *
• 빛고을 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

황토시광 영화사랑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뒤편)

1관	스타더스트(12세)
2관	미스터빈의 홀리데이(전체)/리턴(18세)
3관	디워(12세)
4관	디워(12세)
5관	서핑업(전체)/판타스틱4/실버서퍼의 위협(12세)
6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있습니까(18세)
7관	만남의 광장(12세)
8관	조디악(15세)
9관	만남의 광장(12세)/화려한휴가(12세)
10관	화려한 휴가(12세)

1588-7941
절찬리 상영중

즐거움이 가득 www.mc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232-9106

1관	리턴(18세)
2관	화려한 휴가/스타더스트(12세)
3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있습니까(18세)
4관	만남의 광장(12세)
5관	디워(12세)
6관	디워(12세)
7관	서핑업/판타스틱4(12세)
8관	조디악(15세)
9관	화려한 휴가(12세)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새로운 기쁨 www.primuscinema.com/www.jeilcinema.co.kr
제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화려한 휴가(12세)
2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있습니까(18세)
3관	리턴(18세)
4관	디워(12세)
5관	만남의 광장(12세)
6관	휴려한휴가/판타스틱4(12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새우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